태안군의 노인복지 현황과 발전방향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Eldery Welfare in Taean-gun

박 창 한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강사- 주저자)
김 기 진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공동연구자)
이 경 희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석사- 공동연구자)
양 승 규 (한서대학교 건강관리학과 대우교수- 교신저자)

Abstract

The aging society has been advanced more than expec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advanced technology especially in medical fields. Accordingly, the average expected life is growing older and older; and, the number of the aged has been increased gradually. Also, the rapid urbanization and nuclear families enable the society to make a change of the concept of the traditional family. Therefore, it is about time to consider the problem of old aged people seriously regardless of government or nongovernment sector.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their basis on the policy of government about the social welfare, regional features, and the desires of the regional residents.

In this study we would reconsider the present condition about the policy of social welfare of government, and check the situations of social welfare with focused on elderly welfare in Taean-gun. We would show what kinds of works Taean-gun should do for its social welfare.

주제어 : 태안군, 사회복지, 노인복지, 지방자치단체

Key Words : Taean-gun, social welfare, aged welfare, local government

Ⅰ. 서 론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여겨져 왔던 사실들에 대

한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노인인구 구성비가 높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저출산 고령사회가 되면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잠재성장율 둔화 등의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인부양비 및 복지비용 부담의 증가, 연금재정 유지곤란, 세대간 갈등, 그리고 교육, 국방, 건설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최종암・변길희, 2005).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곳은 지방정부이다. 특히 광역시 이외의 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젊은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접근해야할 분야가 사회복지분야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대처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태안군을 중심으로, 특히 노인복지분야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2006년 6월말 현재 태안군의 전체인구는 64,208명이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0-4세 인구는 전체인구의 3.82%인 2,456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4%인 11,179명으로 나타나 저출산에 의한 유년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태안읍은 고령사회(aged society)[1], 고남면을 비롯한 6개면은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나타났으며, 이원면은 28.5%로서 가장 높은 고령사회로 조사되었다.

2002년 대비 2006년 6월 현재 5년 동안의 연도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0-4세 인구는 각각 2.80%, 22.99%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54% 증가하여 태안군 역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도별 인구증가 비율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년대비 2006년 6월 현재
	명	전년대비	명	전년대비	명	전년대비	명	전년대비	명	전년대비	
전체인구	66,060	-2.68	63,930	-3.22	63,764	-0.26	63,794	0.05	64,208	0.65	-2.80
0-4세	3,189	-9.07	2,848	-10.69	2,728	-4.21	2,489	-8.76	2,456	-1.33	-22.99
65세이상	9,760	3.46	10,100	3.48	10,679	5.73	10,972	2.74	11,179	1.89	14.54

자료 : 2005년 통계연보, 태안군. 2006년은 6월말 현재.

1) 국제연합(UN)은 국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에 도달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7%에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표 2> 태안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읍·면별 현황 (2006년)

(단위 : 명/%)

구분	전체 인구수	노인수	구성비	연령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이상
태안읍	27,386	3,125	11.41	1,128	998	517	298	121	53	9	1
안면읍	9,701	1,747	18.00	628	500	325	189	68	33	4	0
고남면	2,777	681	24.52	253	217	99	70	32	7	2	1
남 면	4,584	1,037	22.62	400	322	160	93	38	22	1	1
근흥면	6,142	1,265	20.59	441	415	203	137	44	19	4	2
소원면	6,212	1,479	23.80	533	496	248	128	48	22	4	0
원북면	5,035	1,168	23.19	417	354	207	124	40	21	4	1
이원면	2,371	677	28.55	225	226	112	70	26	14	3	1
계	64,208	11,179	17.41	4,025	3,528	1,871	1,109	417	191	31	7

자료 :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내부자료(재구성), 2006. 6.

지역사회는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가까이에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장소이다. 분권화 추세에 맞춰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획력, 자율성, 책임감이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복지조치"라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행정처분의 대상자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자기결정은 무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수급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권리주장을 하게 되었다. 즉, 이용자의 의식이 수혜에서 권리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성숙과 20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며,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이 커지게 된다.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 자기결정을 중요시 할 것이며, 다양한 정보(설명과 동의, informed and consent), 불만사항의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최근의 사회복지환경은 잠재적인 복지수요가 일반화되면서 사회복지대상자(client)의 다양화 및 보편화, 군민의 권리의식 및 보건복지의식의 확대, 각종 다양한 사회문제의 출현 등 책임성과 전문성을 욕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적인 보건복지연계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태안군은 생활 속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복지욕구를 복지와 보건이 연계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민주화와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역문제

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주민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다양한 주민운동은 지역사회복지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주민운동은 자조집단을 형성할 수 있고, 주민운동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앞으로 태안군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중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기초단체의 태안군을 배경으로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계획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노인복지욕구와 노인복지 수요의 전환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욕구의 개념과 원칙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본질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욕구의 복잡성 때문에 욕구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주상현, 2006). 욕구는 개인욕구들의 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 욕구가 사회성을 가질 때 사회적 욕구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운희(2004:109-110)은 사회적 욕구란 ① 욕구에 대한 인지는 가치를 포함하며, ② 어떤 일련의 상황속에 있는 특수집단의 사람들은 비슷한 욕구를 가지게 되며, ③ 욕구는 실제 존재하는 상태와 달성하려고 하는 것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④ 욕구의 인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욕구 유형을 Maslow(1954)는 심리적 차원에서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소속감의 욕구, 자존심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 5가지로 위계화 하여 가장 낮은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 욕구로 상향적으로 만족시켜 나간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조운희, 2004:109-110). 이러한 Maslow의 이론은 욕구가 계층화 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지역의 복지계획수립시 정책수립가들이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기초적인 욕구부터 순차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Bradshaw(1972)는 ① 전문가들에 의해 규정된 욕구인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 ② 사회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사정하여 파악하는 인지적 욕구(felt need) ③ 무엇인가에 대한 수요에 의해 느껴진 욕구가 행동으로 표출된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 ④ 각기 다른 인구집단에 존재하는 서비스 수준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비교욕구(comparative need)로 구분하여 4가지 유형의 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조운희, 2004:109-110).

한편,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목표는 모든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욕구, 그들의 강점과 그들 가족의 취약점을 감안하면서 노인들 스스로의 힘을 활용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고양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문인숙(1995: 17)은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원칙으로 전문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접근용이성의 원칙 등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욕구란 개인이 느끼는 무엇인가의 결핍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 이는 현재의 상태와 바라는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또는 조건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개념을 토대로 하여 노인생활의 기본 욕구를 한국노년학회(2000)에서는 경제, 보건의료 및 건강, 가족, 주거생활, 장기요양보호노인과 수발자 실태, 여가, 교육, 자원봉사, 성, 죽음·임종·호스피스, 복지시설, 권익운동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2.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의 변화

사회복지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수립하지만 그 실천은 주민의 생활단위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정부차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차원에서 통합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서비스 제공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복지체감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를 위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초자치단체에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2005년부터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의 하나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등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제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태안군이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는 태안군의 사회복지환경, 경제적요인, 군민의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여 태안군민에게 최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와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의 유치 등 사회복지환경에 있어서 새로운 지역사회문제의 출현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계획적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복지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태안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계획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군민 참여 속에서 명확하게 체계화하여 계획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계획은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의 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태안군이 주체가 되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종합계획, 미래발전계획, 사업계획, 실천계획, 주민참여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은 법정계획, 영역별 종합계획, 실현계획,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였다. 법정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15개 사회복지관련법에 따라 수립하며, 영역별 종합계획은 9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실현계획은 계획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도록 하는 실천적 계획이며, 장기계획은 2010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국가의 사회복지계획과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도시 태안」을 건설하기 위하여 태안군이 수행하여야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태안군 지역사회 내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태안군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수준과 복지에 대해서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군민이 사회복지를 수동적 입장에서 제공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권리로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복지영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계획은 향후 태안군 사회복지종합계획의 실행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계획은 민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구축에 관해서 구체적인 진행방향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태안군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제공하여 태안군 지역복지의 종합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계획은 태안군의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복지의 방향성에 있어 중심적인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노인복지 서비스 실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주상현, 2006).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노년학회(2000)에서는 경제, 보건의료 및 건강, 가족, 주거생활, 장기요양 보호노인과 수발자 실태, 여가, 교육, 자원봉사, 성, 죽음·임종·호스피스, 복지시설, 권익운동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정경희 외(1998) 등은 노인문제를 ① 소득의 감

소와 경제적 의존 ② 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 ③ 주거문제 ④ 건강보호문제 ⑤ 역할상실과 여가 ⑥ 사회참여문제 등으로 살펴보고 있고, 이가옥(2002)은 노년기 삶의 구성요소로 ① 건강 ② 물리적 복지 ③ 경제활동 ④ 가족관계 ⑤ 주거 ⑥ 교육 ⑦ 여가활동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1997)가 조사한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에 의하면 계층표집방법에 의해 60세 이상 일반노인 1,000명, 요보호 노인 1,003명(치매노인 313명, 중풍노인 449명, 와상노인 304명)을 ① 노인욕구의 우선순위 ② 소득보장욕구 ③ 취업욕구 ④ 의료·수발서비스 욕구 ⑤ 재가보건복지서비스 욕구 ⑥ 부양가족의 지원욕구 ⑦ 주거보장 욕구 ⑧ 일상생활지원 욕구 ⑨ 자원봉사욕구 등 9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정책과제로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보장과 신체기능상태가 좋지 않은 요보호 노인(치매 등)의 수발, 치료욕구의 충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동시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초적 욕구 충족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신승연(1999)의 연구에 의하면, 평택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욕구조사 및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 282명을 비율적 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①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② 가구의 경제학적 특성 ③ 노인의 일반적 특성 ④ 노인의 건강상태 ⑤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⑥ 경제활동 ⑦ 생활여건 ⑧ 부양가족의 부담 등 8개영역을 분석한 결과 노인의 우선순위 욕구는 의료서비스 개선과 노후생활보장을 취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양이(2004)는 전북노인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 296명을 유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여 ①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결혼상태, 주택형태 등 일반적 특성요인 ② 자녀수, 가족형태, 가구원수, 동거자녀와의 만족도, 별거이유, 자녀와의 접촉빈도, 의사결정권 등 가족관계요인 ③ 생활수준, 수입원, 직업활동의 유무, 용돈의 만족도, 지출내용, 목욕횟수 및 장소, 식사횟수 등 경제상태요인 ④ 질병의 유무 및 질병명, 이용의료기관, 의료기관 이용시 교통편, 건강관리방법, 의료서비스 내용, 우울 및 소외감 정도 등 건강상태 요인 ⑤ 소일거리, 여가활동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노인복지서비스의 욕구 및 만족도, 친구관계, 노인의 문제 등 여가활동 및 노인복지서비스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대안으로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정책, 건강보장정책, 교육 및 여가정책, 주택보장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Aday and Andersen(1984)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모델이 많이 활용되는데, 이들은 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틀을 만들었고 이 모형은 이가옥·이미진(2001), 이혜원(1995)의 연구에서 보듯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혜원(1995)은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Aday and Andersen(1984)의 요인에 가구유형, 주택유형, 거주기간, 취

사도구유형, 목욕실 유무, 가계수입, 가사담당자 유무, 생존자녀 유무, 가족수발담당자 유무 등의 가족수발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박경숙(2003)은 노인가구의 가족수발관련 변수들을 각각 해당 귀속요인이나 자원요인으로 포함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귀속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별 특성 및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결과 생계비 지원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의 이용율이 저조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이 상당히 적으며, 도시노인이 농촌노인보다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거주지역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기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욕구 실태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관련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대체적으로 성별, 지역, 일반적 특성요인, 경제적 요인, 보건·의료서비스 요인, 여가·문화요인, 시설 및 서비스 이용요인 등으로 크게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조사설계 및 분석결과

1. 조사설계

태안군 8개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부의 응답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분명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183부의 응답지만을 본 실태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다.

<표 3>은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성별을 살펴보면, 응답자 총183명 중 남자가 95명(51.9%)이었고, 여자는 88명(48.1%)이었다. 출생지는 태안군이 122명으로 66.7%를 차지하였고, 태안군 이외 지역은 61명으로 33.3%였다. 연령대는 70대가 104명(56.8%)으로 가장 많았으며, 70대미만이 45명(24.6%), 80대 28명(15.3%), 90대 이상이 6명(3.3%) 이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자가 86명(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등학교(27.8%), 무학(15.3%), 대학교(3.3%) 순이었다. 직업은 무직이 전체 129명(70.5%)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27명(14.7%), 일반작업직 14명(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6명(36.1%), 불교 63명(34.4%), 천주교 35명(19.1%), 기독교 19명(10.4%)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3> 노인복지 관련 응답자 특성

(n=183)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95(51.9)	출생지	태안군	122(66.7)
	여	88(48.1)		태안군 이외 지역	61(33.3)
	합계	183(100.0)		합계	183(100.0)
연 령	70대미만	45(24.6)	학력	무학	28(15.3)
	70대	104(56.8)		초등학교 졸업	0(0)
	80대	28(15.3)		중학교 졸업	86(47.0)
	90대이상	6(3.3)		고등학교 졸업	63(34.4)
				대학이상	6(3.3)
	합계	183(100.0)		합계	183(100.0)
직업	무직	129(70.5)	종교	종교 없음	66(36.1)
	자영업	27(14.7)		불교	63(34.4)
	일반작업직	14(7.7)		천주교	35(19.1)
	판매서비스직	7(3.8)		기독교	19(10.4)
	사무기술직	6(3.3)			
	합계	183(100.0)		합계	183(100.0)

수집된 자료는 정해진 규칙과 틀에 맞춰 부호화하여 리코딩 과정을 거쳐 입력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ver. 1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이었으며, 경우에 따라 교차분석, 집단간 평균비교분석 방법 등이 활용되었다.

2. 노인복지 현황

1) 일반 현황

2006년 6월말 현재 태안군의 총인구는 64,208명이다. 그 중 남성이 50.29%인 32,293명, 여성이 49.71%인 31,915명으로서 남성이 여성보다 378명 많다. 0-14세 유년인구는 14.49%인 9,303명,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67.84%인 43,561명, 65세-79세 전기노령인구는 16.66%인 9,413명, 80세 이상 후기노령인구는 2.75%인 1,766명이다.

읍·면별 남여구성비를 살펴보면 태안읍과 근흥면 등 3개면은 남성비율이 높은 반면 안면읍과 고남면 등 3개면은 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비율 중 근흥면이 51.45%로 가장 높으며, 여성비율은 고남면이 50.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2명이 감소하여 6명이며, 최고령자는 근흥면의 106세로 나타났다.

<표 4> 태안군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인구(0-100세 이상)						100세 이상
	계		남		여		
	인구수 (a)	구성비 (읍·면/총인구)	인구수 (b)	구성비 (b/a)	인구수 (c)	구성비 (c/a)	
계	64,208	100	32,293	50.29	31,915	49.71	6
태안읍	27,386	42.65	13,829	50.50	13,557	49.40	1
안면읍	9,701	15.11	4,832	49.81	4,869	50.19	
고남면	2,777	4.33	1,368	49.26	1,409	50.74	1
남 면	4,584	7.14	2,279	49.72	2,305	50.28	1
근흥면	6,142	9.57	3,160	51.45	2,982	48.55	2
소원면	6,212	9.67	3,093	49.79	3,119	50.21	
원북면	5,035	7.84	2,540	50.45	2,495	49.55	
이원면	2,371	3.69	1,192	50.27	1,179	49.73	1

자료 :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재구성, 2006.6월말 현재.

연도별 인구 증감비율을 살펴보면 과거 4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1.09%로 매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2년 대비 2006년 6월말 현재 2.80%가 감소하여 전체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179명으로서 전체인구대비 17.4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4%를 넘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이런 추세라면 초고령사회(20%)로의 진입도 얼마 남지 않은 실정이다.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이 40.48%, 여성노인이 59.52%로서 남성노인보다 2,130명 많다. 읍・면별 현황을 살펴보면 태안읍이 11.41%로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반면, 안면읍 고령사회, 고남면을 비롯한 6개 면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심각한 노인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원면은 28.55%로서 가장 높은 고령비율을 타나내고 있다.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보면 충청남도는 평균 13.25%로서 아직 고령사회는 진입하지 못했으나 8개 시군이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된 반면 천안시는 6.8%로서 고령화 사회도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별 순위를 살펴보면 태안군은 16개 시・군 중 9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표 5> 고령화 비율

(단위 : 명/%)

구 분	전 국	충청남도	태안군
전체인구	48,294,000	1,963,060	64,208
65세 이상노인	4,383,000	262,007	11,179
장애구성비	9.08	13.35	17.41

출처 : 통계청 인구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2006.
* 전국 및 충남은 2005년12월 말 기준, 태안군은 2006년 6월말 기준임

2006년도 태안군의 총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 예산액은 209,966,056천원이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8,926,56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1,039,496천원으로서 이들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15,301,508천원으로서 7.2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은 8.7%로서 OECD평균(30개국 중 22개국 기준) 20.1%보다는 11.4%가 낮은 실정이다. 2005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6.57%, 2005년 6.77%로서 3년간의 평균6.88%이며, 2006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7.68%증가하였다. 2006년 지방재정 자립도는 26.6%로서 전년대비 1.1%증가하여 매년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태안군의 예산편성 영역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순으로 기초생활보장 중심 예산지출 비중이 높아 군민복지 증진에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사회복지예산 중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군비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45.1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복지 21.55%, 보육사업 20.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예산이 41.79%를 차지한 반면 여성복지 예산은 0.93%로서 가장 낮게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태안군의 사회복지 재정 중 보조금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55.72%, 도비 14.70%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비율이 70.42%로서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시책과의 연관성은 가지지만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예산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포괄적 예산배정에 의한 국·도비는 줄어드는 반면 군비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2) 노인복지 자원 현황

태안군의 노인복지자원은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 181개소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유료양로시설 2개소와 기타 의료복지시설 등은 없는 실정이다.

향후 노인복지자원은 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수발보험 제도 시행에 앞서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노인복지자원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며, 구체적인 시설의 수와 지역별 배치는 대상 노인의 거주지역과 지역별 노인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6> 읍·면별 경로당 수 및 회원 수

(단위: 명/개소)

읍·면명	경로당 수	회원수		
		계	남	여
계	181	8,456	4,508	3,948
태안읍	53	2,383	1,295	1,088
안면읍	25	1,191	676	515
고남면	15	525	261	264
남 면	13	701	361	340
근흥면	17	828	498	330
소원면	17	1,050	509	541
원북면	25	1,079	560	519
이원면	16	699	348	351

자료 :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재구성, 2006.

3. 노인복지 욕구

1) 노인복지 서비스 만족도

(1) 양로시설

양로시설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49명(81.4%)이었고,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34명(18.6%)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노인 149명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65명(43.6%), 대체로 불만족이 58명(38.9%), 대체로 만족이 26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만사항으로는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62명으로 4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 질이 낮아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51명으로 34.2%,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는다가 25명으로 16.8%, 이용료가 고가라고 응답한 경우가 11명으로 7.4% 등의 순위를 보였다.

양로시설 비이용자 34명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묻는 항목에는 원거리에 있어 교통

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노인이 19명으로 5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용이 높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9명으로 26.5%. 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5명으로 14.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7> 양로시설 만족도와 불만사항

구분		빈도	비율(%)
이용 경험	있음	149	81.4
	없음	34	18.6
	합계	183	100.0
만족도 (n=149)	매우 불만족	0	0.0
	대체로 불만족	58	38.9
	보통	65	43.6
	대체로 만족	26	17.5
	매우 만족	0	0.0
	합계	149	100.0
불만사항 (n=149)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함	62	41.6
	서비스 질이 낮아 효과 없음	51	34.2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음	25	16.8
	이용료가 고가	11	7.4
	합계	149	100.0
시설 비이용 사유 (n=34)	원거리에 있어 교통이 불편함	19	55.9
	비용이 높음	9	26.5
	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름	5	14.7
	기타	1	2.9
	합계	34	100.0

(2) 노인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자는 46명(74.9%)이었고, 이용 경험이 없는 노인은 137명(74.9%)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46명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9명(6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불만족하다가 10명(21.8%)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7명으로 1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만사항으로는 직종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16명으로 34.8%, 서비스 질이 낮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15명으로 32.6%를 차지하여 근소한 차이로 순위를 달리하고 있다. 그 밖에 의견으로는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는다가 8명(17.4%), 원거리에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7명(15.2%) 등 이었다.

노인공동작업장 비이용자를 137명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묻는 항목에는 원거리에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76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이 어

디 있는지 모른다(41명, 30.0%), 시설 자체가 없다(14명, 10.2%) 등의 순이었다.

<표 8> 노인 공동작업장 만족도와 불만사항

구분		빈도	비율(%)
이용 경험	있음	46	25.1
	없음	137	74.9
	합계	183	100.0
만족도 (n=46)	매우 불만족	0	0.0
	대체로 불만족	10	21.8
	보통	29	63.0
	대체로 만족	0	0.0
	매우 만족	7	15.2
	합계	46	100.0
불만사항 (n=46)	직종이 다양하지 못함	16	34.8
	서비스 질이 낮아 효과 없음	15	32.6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음	8	17.4
	원거리에 있어 교통이 불편함	7	15.2
	합계	46	100.0
시설 비이용 사유 (n=137)	원거리에 있어 교통이 불편함	76	55.5
	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름	41	30.0
	시설자체가 없음	14	10.2
	기타	6	4.3
	합계	137	100.0

(3) 경로당

경로당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자는 135명으로 73.8% 였고, 이용 경험이 없는 노인은 48명으로 26.2%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135명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8명으로 43.0%,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42명으로 31.1%, 대체로 불만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28명으로 20.7%, 매우 불만족이 7명으로 5.2%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만사항으로는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74명으로 54.8%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았고, 서비스 질이 낮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47명으로 34.8%, 시설자체가 없다는 경우가 14명으로 1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로당 비이용자 48명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묻는 항목에는 원거리에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1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가 13명(27.1%), 시설 자체가 없다가 8명(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로당의 기능에 대한 조사항목에는 여가활용의 장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82명

(44.8%), 지역노인의 유대와 결속을 다지는 장소가 41명(22.4%),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장소가 27명 (14.8%),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응답한 노인이 21명(11.5%), 사랑방 역할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12명(6.6%)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9> 경로당 만족도와 불만사항

구분		빈도	비율(%)
이용 경험	있음	135	73.8
	없음	48	26.2
	합계	183	100.0
만족도 (n=135)	매우 불만족	7	5.2
	대체로 불만족	28	20.7
	보통	42	31.1
	대체로 만족	58	43.0
	매우 만족	0	0.0
	합계	135	100.0
불만사항 (n=135)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함	74	54.8
	서비스 질이 낮아 효과 없음	47	34.8
	시설자체가 없음	14	10.4
	합계	135	100.0
시설 비이용 사유 (n=48)	원거리에 있어 교통이 불편함	21	43.7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름	13	27.1
	시설자체가 없음	8	16.7
	기타	6	12.5
	합계	48	100.0
경로당의 향후 기능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	82	44.8
	지역노인의 유대와 결속을 다지는 장소	41	22.4
	교통정리,조기청소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곳	27	14.8
	공동작업 등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	21	11.5
	노인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랑방 역할	12	6.6
	합계	183	100.0

(4) 노인대학

노인대학 이용 경험이 있는 자는 40명으로 21.9%였고, 경험이 없는 자는 143명으로 78.1%였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40명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명(35.0%), 대체로 만족이 12명(30.0%),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만족이 각각 7명(17.5%) 등이었다.

시설 비이용자 143명을 대상으로 비이용 사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들어본 적 없거나 이용방법을 몰라서가 71명으로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9명으로 34.3%,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서가 21명으로 1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노인대학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이용 경험	있음	40	21.9
	없음	143	78.1
	합계	183	100.0
만족도 (n=40)	매우 불만족	0	0.0
	대체로 불만족	7	17.5
	보통	14	35.0
	대체로 만족	12	30.0
	매우 만족	7	17.5
	합계	40	100.0
비이용 사유 (n=143)	들어본 적 없거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71	49.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9	34.3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21	14.7
	자격이 없거나 서비스 이용대상이 아니라서	12	8.4
	합계	143	100.0

(5) 노인 주간/단기 보호 서비스

주간/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41명(22.4%)이었고, 이용 경험이 없는 노인은 142명(77.6%)이었다.

41명의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21명으로 51.2%, 대체로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14명으로 34.2%, 보통이다가 6명으로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주간/단기 보호 서비스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이용 경험 (n=183)	있음	41	22.4
	없음	142	77.6
	합계	183	100.0
만족도 (n=41)	매우 불만족	0	0.0
	대체로 불만족	14	34.2
	보통	6	14.6
	대체로 만족	21	51.2
	매우 만족	0	0.0
	합계	41	100.0
비이용 사유 (n=142)	들어본 적 없거나 이용방법 몰라서	67	47.2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45	31.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4	16.9
	자격이 없거나 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니라서	6	4.2
	합계	142	100.0

142명의 서비스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들어본 적 없거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라고 응답한 노인이 67명으로 47.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서가 45명으로 31.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4명으로 16.9% 등의 순위를 보였다.

(6) 노인 무료급식 서비스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노인은 71명(38.8%)이었고 경험이 없는 노인은 112명(61.2%)이었다.

이용 경험이 있는 7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이 31명으로 43.7%, 매우 만족이 24명으로 33.8%로 나타나 상당수가 만족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이용자 112명을 대상으로 비이용 사유를 묻는 항목에는 이용하기 창피해서라고 응답한 노인이 37명으로 33.0%를 차지하였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2명으로 28.6%,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24명으로 21.4% 등의 순위를 보였다.

<표 12> 노인 무료급식 서비스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이용 경험	있음	71	38.8
	없음	112	61.2
	합계	183	100.0
만족도 (n=71)	매우 불만족	0	0.0
	대체로 불만족	0	0.0
	보통	16	22.5
	대체로 만족	31	43.7
	매우 만족	24	33.8
	합계	71	100.0
비이용 사유 (n=112)	이용하기 창피해서	37	33.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2	28.6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24	21.4
	들어본 적 없거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13	11.6
	자격이 없거나 서비스 이용대상이 아니라서	6	5.4
	합계	112	100.0

(7) 노인 무료 이·미용 서비스

무료 이·미용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노인은 71명(38.8%)이었고, 이용 경험이 없는 노인은 112명(61.2%)이었다.

이용경험이 있는 7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1명으로 43.7%,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16명으로 22.5%를 차지함으써 전반적으로 만족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이용자 112명을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용하기 창피해서가 39명으로 34.8%,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0명으로 26.8%,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서가 24명으로 21.4%, 들어본 적 없거나 이용방법 몰라서가 16명으로 14.36%로 나타났다.

<표 13> 무료 이/미용 서비스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이용 경험	있음	71	38.8
	없음	112	61.2
	합계	183	100.0
만족도 (n=71)	매우 불만족	0	0.0
	대체로 불만족	0	0.0
	보통	24	33.8
	대체로 만족	31	43.7
	매우 만족	16	22.5
	합계	71	100.0
비이용 사유 (n=112)	이용하기 창피해서	39	34.8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0	26.8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24	21.4
	들어본 적 없거나 이용방법 몰라서	16	14.3
	자격이 없거나 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니라서	3	2.7
	합계	112	100.0

(8) 경로잔치

복지관, 읍・면사무소의 경로잔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110명(60.1%)이었고, 이용 경험이 없는 노인은 73명(39.9%)으로 나타났다.

이용 경험이 있는 11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로잔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8명으로 52.7%, 대체로 만족한다의 경우가 42명으로 38.2%, 매우 만족이 10명으로 9.1%로 나타나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이용자 73명을 대상으로 복지관이나 읍・면사무소의 경로잔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거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라는 응답이 24명(32.9%)로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2명(30.1%),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서가 21명(28.8%), 자격이 없거나 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니라서 6명(8.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경로잔치 서비스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이용 경험	있음	110	60.1
	없음	73	39.9
	합계	183	100.0
만족도 (n=110)	매우 불만족	0	0.0
	대체로 불만족	0	0.0
	보통	58	52.7
	대체로 만족	42	38.2
	매우 만족	10	9.1
	합계	110	100.0
비이용 사유 (n=73)	들어본 적 없거나 이용방법 몰라서	24	32.9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2	30.1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21	28.8
	자격이 없거나 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니라서	6	8.2
	합계	73	100.0

(9) 노인 취업 정보 제공 및 교육/알선 서비스

취업 정보 제공 및 교육/알선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28명으로 15.3%였고, 이용 경험이 없는 노인은 155명으로 8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8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명으로 53.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매우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13명으로 46.4%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5> 취업정보 제공 및 교육/알선 서비스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이용 경험 (n=183)	있음	28	15.3
	없음	155	84.7
	합계	183	100.0
만족도 (n=28)	매우 불만족	13	46.4
	대체로 불만족	0	0.0
	보통	15	53.6
	대체로 만족	0	0.0
	매우 만족	0	0.0
	합계	28	100.0
비이용 사유 (n=155)	들어본 적 없거나 이용방법 몰라서	57	36.8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42	27.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9	25.2
	이용하기 창피해서	11	7.1
	자격이 없거나 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니라서	6	3.9
	합계	155	100.0

한편 155명의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들어본 적 없거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라는 응답자가 5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멀어서가 42명(27.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9명(25.2%) 등의 순위를 보였다.

2)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

2008년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8명으로 26.2% 였고,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135명으로 73.8%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로는 주로 가족/친지로부터가 20명(41.7%), 주위사람으로부터가 15명(31.3%), 사회복지사/간병인 등으로부터가 7명(14.6%), 대중매체를 통한 경로가 6명(12.5%)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수발보험 가입여부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노인이 가입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115명, 62.8%).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요양시설 입소가 34명(29.6%), 방문간병 수발이 32명(27.8%), 요양관리지도가 24명(20.9%),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이 15명(13.0%) 등 이었다.

<표 16>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

구 분		빈 도	비 율(%)
노인수발 보험제도	알고 있다	48	26.2
	모른다	135	73.8
	합계	183	100.0
알게된 경위 (n=48)	가족/친지로부터	20	41.7
	주위 사람	15	31.2
	사회복지사/간병인 등	7	14.6
	대중매체(신문,TV,라디오 등)	6	12.5
	합계	48	100.0
노인수발 보험제도 가입의사	있다	115	62.8
	없다	68	37.2
	합계	183	100.0
원하는 서비스 (n=115)	요양시설 입소	34	29.6
	방문 간병 수발	32	27.8
	요양관리지도	24	20.9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15	13.0
	방문 재활	6	5.2
	방문 간호	4	3.5
	합계	115	100.0

4. 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1) 주요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필요성

노인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사업 내역별로 살펴보면, 노인 무료 이/미용 서비스와 취업정보 제공/교육/알선 서비스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련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표 17> 주요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구분		인식정도(%)					합계 (%)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주요 노인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경로당	7 (3.8)	26 (14.2)	44 (24.0)	60 (32.8)	46 (25.1)	183 (100.0)
	노인 대학	0 (0.0)	13 (7.1)	61 (33.3)	68 (37.2)	41 (22.4)	183 (100.0)
	노인 무료 급식	7 (3.8)	29 (15.8)	46 (25.1)	49 (26.8)	52 (28.4)	183 (100.0)
	노인 무료 이/미용	7 (3.8)	15 (8.2)	103 (56.3)	45 (24.6)	13 (7.1)	183 (100.0)
	경로잔치 서비스	6 (3.3)	13 (7.1)	28 (15.3)	83 (45.4)	53 (29.0)	183 (100.0)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0 (0.0)	21 (11.5)	13 (7.1)	96 (52.5)	53 (29.0)	183 (100.0)
	취업정보 제공/교육/알선	14 (7.6)	42 (29.5)	80 (43.7)	34 (18.5)	13 (7.1)	183 (100.0)

2)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필요성

그 밖에 노인복지 서비스 관련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관해서는 <표Ⅲ-44>와 같다.

대체로 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분야는 노인생활시설의 확충, 노인치매전문센터의 확대, 주택 개보수 및 장애제거 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대여, 의료/보건/복지 통합이용 확대, 노인생활종합상담 서비스 등이다.

<표 18>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구분		인식정도(%)					합계 (%)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도구적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시설 확충	0 (0.0)	28 (15.3)	35 (19.1)	85 (46.4)	35 (19.1)	183 (100.0)
	노인 가정봉사원 파견	0 (0.0)	41 (22.4)	75 (41.0)	67 (36.6)	0 (0.0)	183 (100.0)
	노인 치매전문센터	0 (0.0)	27 (14.8)	40 (21.9)	63 (34.4)	53 (29.0)	183 (100.0)
	노인사회활동지원 서비스	7 (3.8)	47 (25.7)	122 (66.7)	7 (3.8)	0 (0.0)	183 (100.0)
노인주거 복지시설	주택 개보수/장애제거	7 (3.8)	18 (9.8)	50 (27.3)	95 (51.9)	13 (7.1)	183 (100.0)
	노인 그룹홈 서비스	7 (3.8)	41 (22.4)	82 (44.8)	47 (25.7)	6 (3.3)	183 (100.0)
노인 의료재활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대여	0 (0.0)	27 (14.8)	35 (19.1)	87 (47.5)	34 (18.6)	183 (100.0)
	의료/보건/복지통합 이용	0 (0.0)	21 (11.5)	48 (26.2)	68 (37.2)	46 (25.1)	183 (100.0)
	직업재활교육	7 (3.8)	49 (26.8)	75 (40.9)	41 (22.4)	12 (6.1)	183 (100.0)
상담 서비스	장례에 관한 상담 서비스	0 (0.0)	81 (44.3)	40 (21.9)	27 (14.8)	35 (19.1)	183 (100.0)
	노인 생활종합상담서비스	7 (3.8)	7 (3.8)	19 (10.4)	81 (44.3)	69 (37.7)	183 (100.0)

3) 노인복지회관

태안군에 개관 예정인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5명(8.2%)이였고, 모른다는 응답자는 168명(91.8%)으로 나타나 모르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관 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는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가 132명(72.1%)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이 참여하고 싶은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장기/바둑교실이 47명으로 29.5%, 장수체조가 38명으로 23.0%, 가요교실이 21명으로 11.5%, 한글교실이 14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할 경우에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참여의사가 있다(35명, 26.5%)는 응답자보다 참여의사가 없다(97명, 73.5%)는 응답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유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이용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5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져서가 22명(43.1%), 거동이 불편해서가 18명(35.3%), 비용이 부담되어서가 7명(13.7%), 관심이 없어서가 3명(5.9%) 등의 순위를 보였다.

<표 19> 태안군 노인복지회관 관련

구분		빈도	비율(%)
개관예정 노인복지 회관인지	알고 있다	15	8.2
	모른다	168	91.8
	합계	183	100.0
노인 복지회관 이용의향	있다	132	72.1
	없다	51	27.9
	합계	183	100.0
참여희망 교육프로그램 (n=132)	장기/바둑교실	47	35.6
	장수체조	38	28.8
	가요교실	21	15.9
	한글교실	14	10.6
	스포츠댄스	12	9.1
	합계	132	100.0
프로그램 유료시 이용의향 (n=132)	있다	35	26.5
	없다	97	73.5
	합계	132	100.0
이용의사 없는 이유 (n=51)	접근성이 떨어져서	22	43.1
	거동이 불편해서	18	35.3
	비용이 부담되어서	7	13.7
	관심이 없어서	3	5.9
	시간적 여유 없어서	1	2.0
	합계	51	100.0

태안군에서 운영 중인 장례예식장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2명(83.1%)이었고,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31명(16.9%)이었다. 152명의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21명,13.8%)보다는 불만족하다(116명, 76.3%)는 의견과, 매우 불만족하다(15명, 9.9%)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불만족 내지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한 13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장례예식장 개선사항을 묻는 항목에서는 시설개선이 98명(74.8%)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이 26명(19.8%), 사용료 인하가 7명(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공원묘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116명, 63.4%)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표 20> 태안군 장례예식장 관련

구분		빈도	비율(%)
이용경험 (n=183)	있다	152	83.1
	없다	31	16.9
	합계	183	100.0
만족도 (n=152)	매우 불만족	15	9.9
	대체로 불만족	116	76.3
	보통	0	0.0
	대체로 만족	21	13.8
	매우 만족	0	0.0
	합계	152	100.0
개선사항 (n=131)	시설 개선	98	74.8
	직원 서비스 향상	26	19.8
	사용료 인하	7	5.4
	합계	131	100.0
추가적인 공설묘지 필요성	필요하다	67	36.6
	필요하지 않다	116	63.4
	합계	131	100.0

Ⅵ. 노인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과제

1. 노인복지계획의 방향

노인복지법 제1조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5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정분권화 정책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다. 따라서 태안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환경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의 기능증대,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복지욕구 다양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급속한 인구 고령화, 장애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 부양기능의 축소 등의 사회구조의 변화로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복지욕구는 지역 및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태안군에 있어서도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 가족형태, 월용돈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욕구에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의 권역별 특성화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집중도와 효과적 배분을 제고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처함과 동시에 지방화·분권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 노인복지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정부에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사업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연금 및 경로연금을 내실화하고 노인인력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교육 및 여가기회를 확대하며, 실버산업 육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중산층 및 서민층의 시설보호를 확대하고,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에 따라 사회복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시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태안군은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한다.

<표 21> 생애주기를 통한 복지계획의 방향

구분	현재의 복지서비스	실시될 복지서비스	미래모습
전기 고령인구 (65-79세)	• 여가문화교육서비스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경로당	• 여가문화교육 서비스 -노인복지회관 내실화 및 확충 -경로당 활성화 -노인대학 내실화 및 확충 -주민자치센터 노인프로그램 지원 -노인동아리 활성화 • 직업교육 및 일자리창출 서비스	일자리를 가지면서 즐거운 여가생활 향유
후기 고령인구 (80세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

이상)	• 취업증진서비스 -취업안내 및 알선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 재가보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 시설보호서비스 -양로시설서비스 -요양시설서비스	-취업알선기관 및 관내기업체 연계시스템 구축 -기술교육 및 평생교육을 통한 취업능력 신장 -노인공동작업장 확충 • 재가복지서비스 -소규모다기능 시설설치 및 확충 -수발지원센터 설치 -노인종합상담센터 기능사업 • 시설복지서비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확충 -생활시설의 지역화	스를 이용하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 향유

태안군의 노인복지계획의 방향은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욕구도 다양하므로 노인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보호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케어시스템 체계를 정비하여 노인이 사시던 곳에서 편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태안군에서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는 여가문화교육 서비스, 취업증진서비스, 재가보호 서비스 등이 있다. 여가문화교육 서비스로는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취업증진 서비스로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등이 있다. 재가보호 서비스로는 재가노인식사배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65-79세의 전기 고령인구에 해당하는 건강한 노인들은 일자리를 가지면서 즐거운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의 노인들은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활성화 및 확대 실시하고, 필요하거나 제공되고 있지 못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새로이 실시될 복지서비스로는 여가문화교육 서비스에 있어서 노인프로그램 지원, 노인동아리 활성화 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취업증진서비스에 있어서 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로는 소규모다기능 시설·수발지원센터 설치 및 노인종합상담 기능사업을 실시한다.

2. 노인복지의 주요과제

1) 노인들이 행복한 생활보장

각종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노인들에게 행복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특히 적정수준의 경로연금, 주거지원, 건강 및 일자리 지원 등 기초적인 생활급여를 실

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여가프로그램, 평생교육 및 은퇴준비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한다.

2) 유기적인 지역사회복지 연계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시설과 기관, 군청과 민간의 연계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에 맞춰 적용대상자 및 수발시설의 공급과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지도자 및 군의회위원, 읍·면 복지위원들과의 유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연계 시스템을 전문화, 과학화시켜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방지해야 한다.

3) 주체적인 군민참여 및 교육

군민 및 노인회 등 자조조직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노인복지 교육과 지역사회복지 인식개선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노인공경의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4) 수급권의 옹호

과거에는 사회복지 수급체계가 자선 및 혜택의 종속적인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군민의 사회복지 수급권을 보장하고 옹호하는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옴브즈맨 제도 확립, 노인회 등 자조집단 육성, 노인학대 예방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3. 노인복지사업 추진방법

1)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 정책의 필요

사회복지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통해 음식만들기, 전통음식점 혹은 유기농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고, 읍면지역에서는 경로당 활용을 통해 짚신 등 지역특산품을 공동생산을 통해 만들고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거나 유기농 채소 등을 경작하여 도시지역 시니어클럽과 연계를 하여 판매하고 소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출향인사(기업)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노인의 소일거리 확보에 주역하고, 은퇴노인을 중심으로 한 은퇴농장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노인복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사회복지시설과 농촌노인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생활시설기관의 서비스 제공 기

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장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도록 한다.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등 지역내 시설 및 기관과 시설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통해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지역내 노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나 경로당에 서비스 가이드 북을 비치하거나 문맹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노인들이 많이 찾는 곳을 방문하여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역내 노인들의 복지욕구실태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적어도 3-4년에 1회 정도는 욕구실태 조사를 면밀히 실시해서 지역복지 욕구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역의 복지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노인관련 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친화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노인수발보험체제에 대비하여 의료서비스 및 노인들의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태안보건의료원 등 공립의료시스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민간 전문병원 등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지역 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병원과의 연계협력시스템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관련 단체, 여성단체, 상공인 단체, 농업경영인 단체 등 관련단체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역(마을)단위 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저소득 노인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중심 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4)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장 정책의 마련

발병시 진료기관에 긴급히 연결해 줄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의 무료셔틀버스 운행과 택시 자원봉사대의 활용을 통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로당과 보건소 의료시스템을 연계하여 노인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에서 무료진료를 통한 농촌지역에 대한 물리치료나 한방치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함으로써 농촌노인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5) 지역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접근성 보장 및 지역친화적인 농촌지역복지모형을 구축하고,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부설기관으로 지역복지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6) 여가·문화 여건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자 배치

여가·문화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사교모임 주선, 스포츠 댄스, 고적지나 성지순례 등을 하는 여행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사업 개발 및 전개 등 여가·문화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진행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여가문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프로그램 없는 비생산적인 활동의 경로당 이용을 탈피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마다 2007년부터 배치할 계획에 있는 경로당 관리를 전담하는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배치하여 경로당관리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남원시, 2006b).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여가프로그램으로는 전통음식, 역사, 언어, 서예, 컴퓨터, 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7) 복지위원제도의 활성화

지역의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한 복지위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복지위원 선발 및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8) 노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각급 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노인공경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출향인사 중 유명인을 중심으로 강사진을 확보하도록 한다. 지역 은퇴노인들의 자조집단 형성을 장려하여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태안군의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출산율 감소로 인한 노동수급 문제와 생산가능 인구의 노년인구 부양 부담이 있을 것이다. 노년인구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먼저 고령화의 주요원인인 출산율 저하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군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산율 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며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태안군 여성 노동인구의 활동 환경 보장을 위한 정책이 더 중요하다.

태안군 인구의 고령화는 각종 사회복지 지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매우 취약한 태안군 상황에서는 고령자 스스로 기초생활, 의료 및 후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고령자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전반적으로 태안군 사회보장지급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지급의 부담 증가분은 군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군의 부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인구의 증가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며, 노인부양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므로, 고령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회 구성층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가져다 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군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군의 경쟁력 악화는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태안군은 고령화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태안군의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및 국민연금제, 생활보호사업 및 노인취업 고령화사회정책과 그 문제점, 고령화 사회가 태안군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시각은 기성세대는 물론이요, 젊은 층으로 갈수록 관심도가 저조 하는 데에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미약하게나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고령화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한 젊은 층을 재생산해내거나 현재의 인력구조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는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상이 더욱 심해진 후에 대처하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후이다. 향후 인구의 규모와 인구의 구성 특히 고령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늙은 태안군'을 만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태안군차원만이 아니라 군민들의 관심과 대응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 바로 고령화대책에 대해 정부, 태안군, 개인이 지혜를 모으지 않는다면 21세기 태안군의 고령화에 덫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는 단기적으로 태안군 경기침체, 예산지출의 증가, 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았을 때 고령화 사회가 가져다 줄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태안군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대비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취업훈련 기회와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문제가 많은 현재의 노인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태안군도 결국은 노인들의 복지욕구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군재정부담도 커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서비스 내용도 최저생활보장 수준의 현금서비스에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복지 욕구를 가정에서 충족시킬 수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데 서구 복지국가와 같은 위기의식을 앞당겨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우리는 미리 걱정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제 막 복지를 시작하려는 마당에 고복지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서구와 같은 위기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자금의 동원과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들을 위해 군민의식의 개혁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노인이 가지는 모든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하나의 지역만을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일반화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다 세밀한 표본추출 과정을 거쳐 욕구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를 통해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시도한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영향관계가 높은 분석지표를 통해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김승권 외. (2005a).「경기도 보건복지 10개년 발전계획(2006～2015년)」.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 (2005b).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외. (2006).「고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2007～2010년)」. 고양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양이. (2004). 전북노인의 실태와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전북사회복지연구, 5.

김용문. (2005).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정책과제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국회시사포럼 세미나 자료집.

남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6a).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남원시 주민욕구조사 결과보고서.

남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6b). 2007-2010 남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문인숙 편역. (1995). 노인복지의 이해(이론과 기법), 서울: 홍익제.

박경숙. (2003). 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

회복지학 통권 55호.
서울특별시. (1997). 노인복지정책과제.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
송정부. (2000). 한국의 사회복지방법론의 통합화와 지역복지시스템. 김성이·大橋 謙策 편,「한일 지역복지 비교연구」. 서울: 나남출판.
신승연. (1999). 노인복지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평택시를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논문집」, 13.
이가옥 외. (2002). 「노년기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문제연구소.
이가옥·이미진. (2001).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1(2): 113-124.
이혜원. (1995). 서울시 거택보호노인의 가정봉사원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5(2): 140-156.
장철인 외. (2006).「태안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재경부. (2004).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경희 외.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운희. (2004).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청목출판사.
주상현. (2006). 지역복지욕구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노년학회. (2002). 「노년학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Aday, Lu Ann, V. Gretchen, Fleming, Ronald Andersen. (1984). *Access to Medical Care In the U.S.: Who Has It, Who Doesn't*. Chicago: Pluribus Press, Inc., Division of Teach'em, Inc., and the Center for Health Administration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Bradshaw, J. (1972). The Concept of Social Need. *New Society*, 19: 640-643.
Maslow, A.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